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03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03
2021.05.03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5.03

1. [재앙아, 나도고소해라]

문재인대통령, 이라는 표현도 우습다. 문재인대통령이라고 부르려면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현행 법상 자연인이 아닌 행정기관의 하나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라는 말이 조금 포괄적인데,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법인격을 지니지 않는' 행정청이라는 이야기다. 행정주체와 행정청은 엄연히 다른데,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자면 행정주체는 훼손당할 명예 등을 지니고 수틀리면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행정청은 그런 거 없다, 로 정리할 수 있겠다.

아나키스트 조직인 우리 < 아나키스트 연대 > 가 굳이 왜 부르주아 사법체계의 이론을 살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자기 입으로 "납득 못할 비난도 참겠다" 던 문재인이,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던 문재인이,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 이라던 문재인이 자신과 '여권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 로 30 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본인 스스로 말한 것을 반복한 것은 둘째치고, 대통령 입내뱉는 행정기관 주제에 고소를 한 것은 제쳐두고, 차떼고 포떼고, 그냥 너무 찌땀 같지 않은가.

어차피 귀막고 개쌍마이 웨이가 시켰다는 것 같으니, 대중역시 당신에게 더 이상 어떤 예의도 지킬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문재인은 대중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독재자임이 분명해졌고, 박정희, 전두환이 총과 칼로 대중을 짓이겼다면 문재인은 세련된 방식으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법으로 가두고, 벌금 내게 하고, 이어서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사람을 스스로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비단 이번 고소뿐만 아니라 문재인 독재 정부 들어서 빔발쳤던 그 모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생각하면 절대 오류가 있는 표현이 아닐 것이다.

독재자 문재인, 당신의 그 행정이라는 것이 속속들이 실패작이었음 이 드러나고 있고, 이미 대가리가 깨졌는데도 당신을 물고 빠는 몇몇 광신도 외에는 당신 편이 없다. 이제 퇴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의 여생, 결코 편안히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하지 말라. 당신 생전, 사후의 역사가 당신을 독재자가 아니라고 기록할 것이라는 그 모든 희망을 버리라. 설령 잊혀질 지라도 당신에게 입막히고 죽어간 그 모든 이들 이 뜬눈으로 살아나서 슬퍼렇게 지켜볼 것이다.

재앙아, 우리는 네가 독재자임을 계속 해외 칠 것이고, 파쇼임을 꾸준히 말할 것이고, 권력의 본질이 이런 것임을 결코 입다물지 않을 것이다. 나도 고소해라.

” 대통령 비난 전단 뿌린 30 대 검찰 송치... 문 대통령, 대리인 통해 고소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301814001&code=940202

2. [동작 그만, 밀장 빼기냐?]

최근 테슬라사가 비트코인 투자를 대중에게 부추긴 후 정작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자 매각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확히는 지난 1 월 말부터 테슬라의 CEO 이자트 위터의 인기인,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해 구세대를

대체할화폐인것처럼이야기하면서꾸준히비트코인투자를사람들에게장려했다. 이의말에혹해서투자한사람들중에서는실제로비트코인을‘새로운’자본주의체제의근간으로보고투자를한사람도있을것이고, 이와달리전문주식꾼들이있는주식시장대신아직손쉽게수익을낼수있는가상화폐에술깃해하면서투자를한사람도있을것이다. 어쨌든그렇게많은사람들이투자를하면서가격을올리고되팔면서수익도얻고함에도불구하고, 자본주의체제에서투자를할수있는것이라면늘그렇듯이어느순간정점에다다르고하향세를맞이하게된다. 이때일론머스크본인은자신의비트코인은안팔았다는동의도를부정을하지않고결과론적으로테슬라는많은사람들이비트코인에투자를한것을이용해서 1 천억원대차익을창출했다.

앞으로할이야기에대해미리선을긋자면일론머스크의의도가어떻든간에대중에게가상화폐투자를부추긴행위는온갖욕을들어야마땅한짓이다. 필자도결과주의는별로안좋아하기에결과론적으로대중이어마무시한피해를봤으니까나뻐다느니를말하려는것은아니다. 탈중앙화를내세우면서정작사용자들은실체도명확히알기어려운불투명한가상의‘화폐’가현실에있는기득권의금융을대체할수있는것인마냥떠들면서사람들을속인것자체가크나큰잘못이라는것이다. 애초에현시대의화폐와금융은가치를유지하기위해현실의물질을기반으로하고있고, 이런금융체계가기득권을거스르지않도록국가가권력이라는폭력을사용하며유지하고있다. 이런체제속에서의가상화폐는결국그체제를벗어나지못하며그저돈세탁소나‘투자’를빙자한국제적도박장이될뿐이다. 이런점을일론머스크라는 IT 업계의권위자가몰랐을리는없다. 그렇기에아무리좋게봐도가상화폐에대해서만큼은그는세간의위기를돈벌이로활용한선동꾼자본가인것이다.

하지만그렇다면그저일론머스크와테슬라사가사기꾼스러운추악한자본가와그가조종하는기업인것일까? 우리모두비트코인을그저멀리하면행복한삶을살수있을것인가? 그렇지않다는건모두다알것이다. 금전적인것에선동된다는것자체가자본주의체제에서물질적인미래가불투명하니발생하는것이며개인의정보부족이나‘어리석음’은지극히부차적인것이다. 특히팬데믹이후점점미래는커녕당장금전적으로위기를겪는사람들은늘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물가는계속해서올라가기만한다. 그뿐만이아니라소위민생의핵심이라던기업은이와중에조금이라도더‘성장’하겠다고언제든지노동자들을해고할준비를하고있다. 이러니까어떻게비트코인이야기에혹하지않겠는가?

그런데요즘일부언론을보면아주그냥신나서일론머스크와비트코인까기에만정신이팔렸다. 정작더문제가되는사건들은국내에서일어나고있는데도말이다. 팬데믹을핑계로기업이노동자들에게행하는만행도매우중요하지만, 잠깐그래도의회주의자들의관점에서보자면올해초전사회를뜨겁게달궜던 LH 투기사건과그조사관련뉴스보도가부쩍줄었다. 아니, 정확히는간혹있기는한데직접찾아보지않으면잘보이지않는다. 왜은근슬쩍대중의눈을네멋대로돌리려하느냐? 대중이빙다리하트바지로보이나? 참으로어처구니없는계정착수많은비트코인비

판뉴스의 댓글들을보다보면항상 LH 를잊지말라는댓글들이보인다. 그만큼현대의대중은더이상하찮은수작질에속지않는다는것이다. 필자는아나키스트이기에솔직히 LH 사건에대해검찰이수사를하든청와대가수사를하든의회가수사를하든결국근본적으로해결되지는않을것이라생각한다. 하지만적어도지탄에의회주의자라면, ‘자랑스러운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지지한다면, 제대로정부의행실에대해언론보도라도제대로해야하는것이아닐까?

<https://news.jtbc.joins.com/html/046/NB12002046.html>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020501514046

3. [또기만...이젠제목쓰기도귀찮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문재인대통령이앞장서서‘근로자의날’을‘노동절’로바꿔주시겠다고한다. 심지어법정공휴일로지정하겠다고까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위대한정당과문재인대통령이라는역대최고의성군의하해와같은은총에성은이망극하다고무릎꿇고절이라도해야겠다. 이름을바꾸고공휴일로지정하는것이진짜로 의미가있다면말이다.

노동절은헤이마켓에서학살당한수십명의노동자들과투쟁가들의기리고, 그들의정신을기리기위해세계노동자들이스스로제정한노동자들의날이다. 그런데정부가어느새이‘노동절’을빼앗아가더니, 이제는이‘노동절’을정부가공인한이름으로설정하고는정부가정한‘법정공휴일’로삼겠다고한다. 오만도이만한오만이었다. 파업노동자를해산시키고, 비정규직을양산하고, 국가주의적노동정책마저도기만적으로실시한정부가대체무엇을할수있단말인가?

노동절은제 2 인터내셔널의정당정치인들의것들도, 전위당의것도, 노동자국가의것도아니다. 투쟁하는노동자들의것이다. 투쟁하는노동자들은정당도, 국가도아닌오직그스스로로서존재할뿐이다. 그리고그스스로뭉친노동자들이조직한노동조합만이, 진정으로노동절의주인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제목조차도쓰기귀찮아지는날이오지않기를빈다. 그리고더이상노동절에경찰, 국가권력이노동자대중을탄압하고시위를‘감독하고보호하는’세상이아닌, 노동자들그스스로가과거의투쟁을기억하며축제의장으로서나아갈수있는세상이오길바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1036300001?input=1195m>